

문 1. 맞춤법에 맞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 ① 돌나물, 꼭지점, 페트병, 낚시꾼
- ② 흡입량, 구름양, 정답란, 칼럼난
- ③ 오뚝이, 싸라기, 법석, 딱다구리
- ④ 차간(車間), 화재(火病), 셋방(貰房), 곳간(庫間)

문 2. ㉠의 단어와 의미가 같은 것은?

친구에게 줄 선물을 예쁜 포장지에 ㉠싼다.

- ① 사람들이 안채를 겹겹이 싸고 있다.
- ② 사람들은 붓짐을 싸고 산길로 향한다.
- ③ 아이는 몇 권의 책을 싼 보통이를 들고 있다.
- ④ 내일 학교에 가려면 책가방을 미리 싼 두어라.

★ 선지 일치, 문제유형 적중, 내용(된소리 표기법, 두음법칙, 사이시옷 표기법)적중

<합격의 기(氣) 마침표 120> 78번

78. 한글 맞춤법이 모두 맞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오뚝이, 싸라기, 널빤지, 깡소주
- ② 늘그막, 곱배기, 딱따구리, 넓다랗다
- ③ 부스러기, 날라리, 무릎팍, 오랜만
- ④ 절뚝발이, 우레, 두드러기, 구레나룻

<2021 선행국어 기본서 1권> P.268 실력완성문제 3, 6번

03.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날이 풀리자 밤마다 낚싯꾼들이 몰려들었다.

06. 다음 중 맞춤법에 맞는 표기는?

- ① 오늘은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 ② 해외 토픽란에서 그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술술술 어문규정 - 한글맞춤법 편> P.163 4번 외 다수

04. 다음 단어 중 사이시옷 용법이 잘못된 것은?

- ① 횃수    ② 셋방    ③ 차간    ④ 숫자    ⑤ 냇과

★ 문제유형 적중, 내용(다의어와 동음이의어) 적중

<2021 대비 박문각 전국모의고사 (20.8.)> 16번 외 다수

문 16. <보기>의 밑줄 친 단어와 문맥적 의미가 동일한 것은?

하늘은 재주를 고르게 주는데

- ① 고르지 못한 날씨 때문에 몸이 찌뿌드드하다.
- ② 이번 시험은 학생들의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 ③ 바닥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 ④ 그녀는 목소리를 고르며 노래할 차례를 기다린다.

문 3.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날씨가 선선해지니 역시 책이 잘 읽힌다.
- ②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속독으로 읽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다.
- ③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직접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 ④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의 진행에 아주 열성적이다.

★ 문제유형 적중, 내용(중복표현, 성분생략) 적중

<2021 쾌도난마 동형 모의고사 3월 5회> 17번 외 다수

문 17.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그것이 대회를 임하는 선수의 정신이란 말인가?
- ② 세법 개정을 위한 법률이 과반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  
→ **중복표현 관련**
- ③ 70년대에는 농민들이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상경하는 일이 많았다. → **성분생략 관련**
- ④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다 나은 서비스와 높은 만족을 느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분생략 관련**

문 4. 다음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빛 공해란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이나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국제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의 ‘전 세계 빛 공해 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빛 공해가 심각한 국가이다. 빛 공해는 멜라토닌 부족을 초래해 인간에게 수면 부족과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농작물의 생산량 저하,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 ① 빛 공해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빛 공해의 주요 요인인 인공조명의 누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자료를 인용하여 빛 공해가 심각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사례를 들어 빛 공해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 유형(서술 방식) 적중

<2021 선해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1회 8번 외 다수

08. 다음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① 대상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상술하고 있다.
- ② 대상의 특성이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③ 대상의 가치와 효용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④ 대상이 지닌 특성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문 5. ㉠, ㉡의 사례로 옳은 것만을 짝지은 것은?

용언의 불규칙활용은 크게 ㉠ 어간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 ㉡ 어미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 어간과 어미 둘 다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          |         |
|----------|---------|
| ㉠        | ㉡       |
| ① 걸음이 빠름 | 꽃이 노람   |
| ② 잔치를 치름 | 공부를 함   |
| ③ 라면이 불음 | 합격을 바람  |
| ④ 우물물을 품 | 목적지에 이름 |

★ 선지 일치, 유형 적중, 내용(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의 구분) 적중

<2021 박문각 전국모의고사 21년 3월> 11번 외 다수

문 11. 밑줄 친 말을 활용할 때, 그 양상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 ㄱ. 하늘이 참 푸르르다.
- ㄴ. 요즘은 운동하는 것도 힘드네요.
- ㄷ. 시간은 흐르고 또 흐른다.
- ㄹ. 언젠가는 치를 일어었어요.
- ㅁ. 정상에 이를 때쯤 그를 보았다.

-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ㄹ, ㅁ

문 6. ㉠ ~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二月(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 현 등(燈)人블 다호라  
 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三月 나며 개(開)흔 아으 만춘(滿春) 들윗고지여  
 녹미 브롤 ㉡ 즈슬 디녀 나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四月 아니 ㉢ 니저 아으 오실셔 꺾고리새여  
 ㉣ 므슴다 錄事(錄事)니문 넷 나를 닛고신더 아으 동동(動動)다리  
 - 작자 미상, 「動動」에서 -

- ① ㉠은 '견'을 의미한다.
- ② ㉡은 '모습을'을 의미한다.
- ③ ㉢은 '잇어'를 의미한다.
- ④ ㉣은 '무심하구나'를 의미한다.

문 7.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그분은 냉혹한 현실(現實)을 잘 견뎌 냐다.
- ② 첫 손님을 야박(野薄)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 ③ 그에게서 타고난 승부 근성(謹性)이 느껴진다.
- ④ 그는 평소 희망했던 기관에 채용(賃用)되었다.

★ 선지(한자어) 일치

<선해국어 기본서 3권> P.48

<2021 술술술 한자가 열린다> P.7, 25 외 다수

現實	현실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
採用	채용	① 사람을 골라서 씀. ② 어떤 의견이나 방안 등을 고르거나 받아들여서 씀.
15	輕薄	가벼울(경) 얇을(박)
183		③ 謹 삼갈(근) - 謹愼(근) 삼갈(신)

★ 선지 일치, 작품 적중, 문제 유형 적중

<2021 선해국어 기본서 2권> <2021 단권화 독해 문학 편>  
 <2021 블랙라벨 문학 작품 독해> <2021 문학 요약 Zip> 외 다수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人블 다호라.  
높이 견 임의 고매한 인품을 비유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 아으 동동(動動)다리.  
모습이시다  
 삼월(三月) 나며 개(開)흔 아으 만춘(滿春) 들윗고지여.  
아름다운 임의 모습 비유  
 녹미 브롤 즈슬 디녀 나샷다. / 아으 동동(動動)다리.  
부러워할 모습을  
 사월(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꺾고리새여.  
잇어 꺾고리새  
 므슴다 錄事(錄事)니문 넷 나를 닛고신더. / 아으 동동(動動)다리.

문 8. 다음 토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자: 오늘의 토의 주제는 '통일 시대의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입니다. 먼저 최○○ 교수님께서 '남북한 언어 차이와 의사소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 교수: 남한과 북한의 말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어휘 차이가 대표적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어휘 차이를 분석한 결과, ... (중략) ... 앞으로도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하 생략]

- ①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② 사회자는 발표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다.
- ③ 발표자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청중 A는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문 9. ㉠ ~ ㉣은 '공손하게 말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 ~ ㉣을 적용한 B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자신을 상대방에게 낮추어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
- ㉡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말해야 한다.
- ㉢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해야 한다.
- ㉣ 상대방의 의견에서 동의하는 부분을 찾아 인정해 준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

- ① ㉠ A: "이번에 제출한 디자인 시안 정말 멋있었어."  
B: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 ② ㉡ A: "미안해요. 생각보다 길이 많이 막혀서 늦었어요."  
B: "괜찮아요. 쇼핑하면서 기다리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하 생략]

### ★ 유형(토의와 토론의 말하기 방식) 적응

<2021 심화 올킬 비문학 워크북> P.7 외 다수

4.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가]와 [나]의 공통적인 말하기 방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반대1]: 공격이나 오염이라는 말씨는 표현의 결과만을 보고 하는 말씨가 아닌지요? 누군가에게 나쁘게 보일 수 있는 표현도 다양한 표현 방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중략]

[찬성1]: 그걸 위축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자기가 쓴 게시물에 자신의 실명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기보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책임을 강조하는 풍토가 자리 잡혀 갈 것입니다. [이하 생략]

- ① 많은 사람의 생각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어 주장을 펼쳐 나간다.
- ② 어떤 상황을 가정한 다음 그 가정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한다.
- ③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자 한다.
- ④ 자신의 주장이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선결 조건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한다.

### ★ 유형 적응, 내용(공손성의 원리) 적응

<2021 심화 올킬 비문학 워크북> P.8 외 다수

1.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의 ㄱ~ㄷ의 대화참여자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대화의 원리를 각각 연결한 것은?

#### <보기1>

• 공손성의 원리: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한다.

요령의 격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
관용의 격률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은 최대화하라.
찬동의 격률	칭찬을 비난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
겸양의 격률	화자 자신을 칭찬하는 말은 최소화하고, 겸손하게 표현하라.
동의를 격률	상대방과 불일치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과 일치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

#### <보기2>

- ㄱ. A : 우리 이번 주말에 바다에 갈래?  
B : 바다 완전 별론데, 등산이 최고지.
- ㄴ. A :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B : 너야 항상 그렇지 뭐. 왜 늘 그 모양이니?
- ㄷ. A : 저 드라마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  
B : 떡볶이 먹고 싶다.

### 문 10. 하버마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버마스는 18세기부터 현대까지 미디어의 등장 배경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공공 영역의 부상과 쇠퇴를 추적했다. 하버마스에게 공공 영역은 일반적 쟁점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형성하는 공공 토론의 민주적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하 생략]

- ① 살롱 문화에서 특정 사회 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은 허용되지 않았다.
- ②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은 상업적 광고뿐만 아니라 공익 광고도 증가시켰다.
- ③ 글로벌 미디어가 발달하더라도 국제 사회의 공공 영역은 공허해지지 않는다.
- ④ 수익성 위주의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가 더 많아지면서 민주적 토론이 감소되었다.

### ★ 유형(주제에 맞는 사례 찾기) 적응

<2021 쾌도난마 모의고사> 3월 7회 14번 외 다수

### 문 14. 다음 내용에 맞게 ㉠에 들어갈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제와 결론이 순환적으로 서로의 논거가 될 때 나타나는 오류를 우리는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부른다. 루선의 「아큐정전(阿Q正戰)」에는 “그놈은 나쁜 놈이니 사형을 당해야 해. 사형을 당하는 걸 보면 나쁜 놈이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순환 논증의 전형적인 예이다. 그런데 순환 논증의 오류는 디지털 지식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할 때 ㉠ 와/과 같은 경우이다.

- ① 검색 엔진 ○○를 통해 온라인 백과사전 △△에서 정보를 얻고,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정보를 수정하여 올리는 것
- ② 검색 엔진 ○○를 통해 온라인 백과사전 △△에서 얻은 정보와 오프라인 백과사전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받아들이는 것
- ③ 검색 엔진 ○○를 통해 온라인 백과사전 △△에서 정보를 얻고, 얻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다시 검색 엔진 ○○와 온라인 백과사전 △△에 의존하는 것
- ④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검색 엔진 ○○에서 얻은 정보는 신뢰하고 이를 증명하는 다른 검색 엔진의 정보들은 신뢰하지 않는 것

### 문 11. ㉠ ~ ㉤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폭설, 즉 대설이란 많은 눈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 ㉠ 그런데 눈은 한 시간 안에 5cm 이상 쌓일 수 있어 순식간에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 ㉡ 또한, 경보는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이다.
- ㉢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 ㉣ 이때 대설의 기준으로 주의보는 24시간 새로 쌓인 눈이 5cm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 ㉤ 이뿐만 아니라 운송, 유통, 관광, 보험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 유형(재배열) 적응

<2021 쾌도난마 모의고사> 3월 5회

### 문 2. ㉠ ~ ㉤을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재배열한 것은?

- ㉠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자 흥선대원군은 김정호를 감옥에 가두고 지도의 판목은 압수해 불태웠다고 한다.
- ㉡ 식민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일제는 “조선인들은 김정호와 대동여지도의 위대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목판마저 불태워버린 미개한 민족”이라고 비난하며 진품의 존재를 숨겨왔던 것이다.
- ㉢ 최근까지도 이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 ㉣ 이는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어독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 ㉤ 그러나 연구 결과 김정호의 옥사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흥선대원군에 의해 불타 사라졌던 대동여지도의 원판이 11장이나 발견되었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문 12. 다음 글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 발달하게 된 것은 바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사고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발달하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언어와 사고가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① 영어의 '쌀(rice)'에 해당하는 우리말에는 '모', '벼', '쌀', '밥' 등이 있다.

② 어떤 사람은 산도 파랗다고 하고, 물도 파랗다고 하고, 보행 신호의 녹색등도 파랗다고 한다.

③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사물의 개념은 머릿속에서 맴도는데도 그 명칭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다.

④ 우리나라는 수박(watermelon)은 '박'의 일종으로 보지만 어떤 나라는 '멜론(melon)'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한다.

★ 선지 일치, 유형 적응, 내용(언어와 사고의 관계) 적응

<2021 단권화+단원 유형별 문풀> P.6

8. '언어는 한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다.'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5지)

① '간장, 온돌, 부럼' 등의 단어를 외국인에게 알려줄 때 한 단어로 간단하게 번역하기 어렵다.

② '농사짓는 땅'을 영어에서는 크기에 따라, 국어에서는 작물에 따라 단어를 다양하게 구별한다.

③ 영어에 'rice'에 해당하는 개념에 대해 우리말은 '모', '벼', '쌀', '밥' 등 세분된 여러 단어로 대응된다.

④ 인도의 코가 부족에게는 열대 지역의 중요한 천연자원인 '대나무'를 표현하는 일곱 가지 단어가 존재한다.

⑤ '자기를 낳아준 남자'를 이르는 말로 우리말에서는 '아빠', 영어에서는 'father', 스페인어에서는 'padre'라고 부른다.

10.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5지)

<보기>

㉠ 한국 사람들은 산도 파랗다고 하고, 물도 파랗다고 하고, 나무도 파랗다고 하며, 보행 신호의 녹색등도 파랗다고 한다.

㉡ 영어권에서는 'my'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우리 엄마', '우리 학교'라고 하며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적 가치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하 생략]

-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문 13.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변지의가 천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내가 그 뜻을 물었더니, 문장 공부를 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때마침 이날 우리 아이들이 나무를 심었기에 그 나무를 가리켜 이렇게 말해 주었다.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가장 먼저 뿌리를 북돋우고 줄기를 바로잡는 일에 힘써야 한다. …(중략)… 나무의 뿌리를 북돋아 주듯 진실한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쏟고, 줄기를 바로잡듯 부지런히 실천하며 수양하고, 진액이 오르듯 독서에 힘쓰고, 가지와 잎이 돌아나듯 널리 보고 들으며 두루 돌아다녀야 한다.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것을 헤아려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글이요,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훌륭한 문장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서사                      ② 분류
- ③ 비유                      ④ 대조

★ 유형(진술 방식 찾기) 적중

<2021 선해국어 기본서 2권> P.53 확인 문제

<보기>의 진술 방식으로 옳은 것은?

우선 새말이란 무엇인가, 새말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가 하는 것부터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말’이란 이미 있었거나,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 그리고 이미 있던 말이라도 새 뜻이 주어진 것을 통틀어 일컫는다. 다른 언어로부터 사물과 함께 차용되는 외래어도 여기에 포함된다.

- ① 논증                      ② 서사
- ③ 묘사                      ④ 설명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언어마다 고유의 표기 체계가 있는데, 이는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알파벳 언어는 표기 체계에 따라 철자 읽기의 명료성 수준이 달라진다.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한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거의 일대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생략]

- ①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는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되는데,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은 철자 읽기의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② 영어 사용자는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좌반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 부위에 더욱 의존한다.
- ③ 이탈리아어는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규칙적이어서 낯선 단어를 발음할 때 영어에 비해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높다.
- ④ 영어는 음운 처리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이 많아서 스페인어에 비해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다.

★ 유형(내용 일치) 적중

<2021 전선해 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3회 20번

20. 다음 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이동 통신망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사물 간의 지능 통신을 이른다. 여기서 사물이란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서비스 등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사물 인터넷은 사물이 단순히 연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사물들이 인간에게 지식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간의 명시적 개입이 없어도 정보를 생성, 수집, 공유,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하 생략]

- ① 사물 인터넷을 통해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② 사물 인터넷에서 사물은 인간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유형, 무형의 것을 의미한다.
- ③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는 센서 중심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사물 인터넷과 다르다.
- ④ 사물 인터넷은 이용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보안 전문 업체 외에 기기 제조사, 플랫폼 및 서비스 제공자까지 보안의 주체로 더해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

### 문 15. (가) ~ (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느다  
유자 안이라도 품엄죽도 ㅎ다마는  
품어 가 반기리 업슬새 글노 설워<sup>ㅎ</sup>느이다
- (나) 동짓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다) 말 업슨 청산(靑山)이오 태(態) 업슨 유수(流水)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이오 님즈 업슨 명월(明月)이로다  
이 중에 병 업슨 이 몸이 분별 업시 늘그리라

(라) 농암(籠巖)에 올라보니 노안(老眼)이 유명(猶明)이로다  
인사(人事)이 변흔들 산천이썸 가샐가  
암전(巖前)에 모수 모구(某水 某丘)이 어제 본 듯<sup>ㅎ</sup>예라

- ① (가)는 고사의 인용을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나)는 의태적 심상을 통해 임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다)는 대구와 반복을 통해 자연에 귀의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④ (라)는 자연과의 대조를 통해 허약해진 노년의 무력함을 표현하고 있다.

### ★ 작품 적중, 선지 일치, 유형(시조 묶음 감상) 적중

<2021 선해국어 기본서 2권> 확인문제 P.365, 366, 373 외

#### 15 반중 조홍감이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느다.  
쟁반 가운데 홍시      곱게도 보이는구나

유자(柚子) 안이라도 품엄 죽도 ㅎ다마는  
유자는      아니라도      품고 감 직도

품어 가 반기리 업슬새 글노 설워<sup>ㅎ</sup>느이다.  
반겨줄 이가 없으니      서리워하나이다

4. 해설:
- ① 한음(漢陰) 이덕형으로부터 감을 대접받고 느낀 바 있어 지은 이 작품은 <조홍시가(早紅柿歌)>로 알려져 있다.
- ② 연상의 매개체를 활용하고 중국 고사를 인용해 정서를 부각하였다.

#### 16 동지사들 기나긴 밤을

동지(冬至)사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한가운데      배어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서방님      굵이 굵이

4. 해설: ① 시간이라는 관념적 대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② 의태어(서리서리, 구비구비)의 사용으로 여성의 섬세한 감각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③ 빼어난 문학적 기교로 애뜻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여 예술성을 확보하였다.

#### [확인 문제]

2. <동지사들 기나긴 밤을>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표현하였다.

② 시간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③ 의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냈다.

④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그리움을 표현했다.

#### 14 말 업슨 청산이요

말 업슨 청산(靑山)이요, 태(態) 업슨 유수(流水)로다.  
말이 없는(의인법)      모양

갑 업슨 청풍(淸風)이요, 님즈 업슨 명월(明月)이라.  
갑      주인

이 중(中)에 병(病)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늘으리라. - 조월, 달관  
자연 속에서      근심 없이

4. 해설:

① '업슨(없다)'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표현의 묘미를 더하였다.

② 대구법을 사용하여 자연의 특성을 열거하고 있다.

#### [확인 문제]

2. <말 업슨 청산이요>의 표현상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특정 시어의 반복이 운율감을 형성한다.

② 대구법을 사용하여 표현의 묘미를 살렸다.

③ 자연물에 의탁하여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④ 자연의 의연함을 의인법으로 강조했다.

<2021 전선해 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4회 19번 외 다수

### 1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靑山(청산)는 엇데<sup>ㅎ</sup>야 萬古(만고)에 프르르며,  
流水(유수)는 엇데<sup>ㅎ</sup>야 晝夜(주야)에 굶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만고상청) 호리라.

- 이황, 「도산십이곡」

나 뽕버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 손디,  
자시는 窓(창)뵈기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넙곳 나가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홍량 시조

[이하 생략]

① 가와 나 는 자연물을 활용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였다.

② 나와 다 에는 대상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암소의 뿔은 수소의 그것보다도 한층 더 검혀하다. 이 애상적인 뿔이 나를 받을 리 없으니 나는 마음 놓고 그 걸 풀밭에 가 누워도 좋다. 나는 누워서 우선 소를 본다. [이하 생략]  
- 이상, 「권태」에서

- ① 대상의 행위를 통해 글쓴이의 심리가 투사되고 있다.
- ② 과거의 삶을 회상하며 글쓴이의 처지를 후회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을 통해 글쓴이의 무료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불만이 반성적 어조로 표출되고 있다.

★ 작품 적중, 유형(서술상의 특징) 적중

<2021 선해국어 기본서 2권> P.256 본문과 확인문제

이 질식한 것 같은 권태 속에서도 자세한 승부(勝負)에 구속을 받나? 아주 바보가 되는 수는 없나? 내게 남아 있는 이 치사스러운 인간 이욕(人間利慾)이 다시 없이 밉다. 나는 이 마지막 것을 면해야 한다. 권태를 인식하는 신경(神經)마저 버리고 완전히 허탈(虛脫)해 버려야 한다.  
- 이상, 「권태」에서

- ① 시대적 과제와 그 해결 방향을 암시적으로 보여 준다.
- ② 작중 화자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③ 부조리한 인간의 내면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 ④ 당시 농촌의 피폐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문 17. 다음 글에서 '황거칠'이 처한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황거칠 씨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거의 발작적으로 일어섰다.

“이 개 같은 놈들아, 어쩌면 남이 먹는 식수까지 끊으려 노?”

그는 미친 듯이 우르르 달려가서 한 인부의 뺨이를 억지로 잡아서 저만큼 내동댕이쳤다. ... (중략) ...

경찰은 발포를 - 다행히 공포였지만 - 해서 겨우 군중을 해산시키고, 황거칠 씨와 청년 다섯 명을 연행해 갔다. 물론 강제집행도 일시 중단되었었다. [이하 생략]

- 김정환, 「산거족」에서 -

- ① 同病相憐
- ② 束手無策
- ③ 自家撞着
- ④ 輾轉反側

★ 작품 적중, 선지 일치

<2021 쾌도난마 모의고사 3월 1회>

문 20. [A]를 읽은 후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말 모를 일이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황거칠 씨는 정신이 아찔했다. 어안이 병병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말끝마다 "x관님 x관님"하는 이춘이란 청년 신사의 얼굴만 멍청히 쳐다보았다. 뒤통스럽게도 그의 얼굴에만 잠시 정신이 팔렸다. [이하 생략]

- 김정환, 「산거족」

<2021 술술술 한자가 열린다>, <2021 선해국어 기본서 3권>  
- 한자성어 편

159 同病相憐	같은 동 병 병 서로 상 불쌍히 여길 련/연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이해하고 잘해 줌.
329 束手無策	뭇을 속 손 수 없을 무 꾀, 채적 꾀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함.
504 自家撞着	스스로 자 집 가 칠 당 붙을 착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
527 輾轉反側	구를 전 구를 전 거꾸로 반 곁 측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 輾轉不寐(전전불매)

문 18. 다음 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살아가노라면  
가슴 아픈 일 한두 가지겠는가

깊은 곳에 뿌리를 감추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사는 나무처럼  
그걸 사는 거다

봄, 여름, 가을, 긴 겨울을  
높은 곳으로  
보다 높은 곳으로, 쉬임 없이  
한결같이

사노라면  
가슴 상하는 일 한두 가지겠는가

- 조병화, 「나무의 철학」

- ① 문답법을 통해 과거의 삶을 반추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슬픔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사물을 의인화하여 현실을 목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삶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 유형(표현법 분석) 적응

<2021 단권화 문학 비문학 어휘 편 36번>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36. 위 시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지)

- ①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② 대화의 형식을 통해 청자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처음과 마지막에 유사한 시구를 배치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⑤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해 가며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문 19.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민족이 지닌 문화재는 그 민족 역사의 누적일 뿐 아니라 그 누적된 민족사의 정수로서 이루어진 혼의 상징이니, 진실로 살아 있는 민족적 신상(神像)은 이를 두고 달리 없을 것이다. 더구나 국보로 선정된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성력(誠力)과 정혼(精魂)의 결정으로 그 우수한 질과 희귀한 양에서 무비(無比)의 보(寶)가 된 자이다. 그러므로 국보 문화재는 곧 민족 전체의 것이요, 민족을 결속하는 정신적 유대로서 민족의 힘의 원천이라 할 것이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그 과거 문화의 존귀함을 말하는 것이요, ( ㉠ )는 말도 국보 문화재가 얼마나 힘 있는가를 밝힌 예증이 된다.

- 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 ② 지식은 나눌 수 있지만 지혜는 나눌 수 없다
- ③ 사람은 겪어 보아야 알고 물은 건너 보아야 안다
- ④ 그 무엇을 내놓는다고 해도 셰익스피어와는 바꾸지 않는다

★ 유형(특정 위치에 어울리는 내용 넣기) 적응

<2021 쾌도난마 모의고사> 3월 6회 2번 외 다수

문 2. 문맥상 ㉠에 가장 적절한 구절은?

나무가 주는 그늘과 공간의 영적 울림 때문에 나무는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나무 아래 모여 앞일을 의논하고, 찬반이 갈리는 문제에 관해 부족 어른이 판단을 내리고는 한다. 따라서 특정한 나무가 한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키쿠유족은 자녀 양육이 끝난 사람들을 공동체 생활 양식의 수호자이자 지혜로운 후견인으로 여겼다. 따라서 그들의 중재자이자 판관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부족의 어른 자리에 앉아 시이기나무 막대를 쥐고 있었다. 그것은 ( ㉠ ) 표시였다. 이런 관례는 평화 협정에 조인하는 것만큼이나 구속력을 지녔고, 공동체 내부에서 그리고 공동체끼리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신성한 숲과 그 나무와 숲에 부여된 영적이고도 상징적인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나무는 언제나 우리의 동반자였다.

- ① 영적 울림을 준다는
- ②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 ③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 ④ 부족의 평화를 구축한다는

문 20.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학의 개념은 분류 개념, 비교 개념, 정량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식물학과 동물학의 종, 속, 목처럼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대상들을 분류하는 개념들이 분류 개념이다. 어린이들이 맨 처음에 배우는 단어인 '사과', '개', '나무' 같은 것 역시 분류 개념인데,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된다. 또한, 현실 세계에 적용 대상이 하나도 없는 분류 개념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니콘'이라는 개념은 '이마에 뿔이 달린 말의 일종임' 같은 분명한 정의가 있기에 '유니콘'은 분류 개념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하 생략]

- ① '직업'은 '작가'를 포괄하는 상위어이다.
- ② '작가'는 하위어이면서, 상위어이다.
- ③ '소설가'는 보다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 ④ ㉠에서 ㉡으로 갈수록 단어의 의미 자질(의미 요소)이 줄어든다.

① '호랑나비'는 '나비'와 동일한 종에 속하지만, 나비에 비해 정보량이 적다.

- ② '용(龍)'은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시물이 없더라도 분류 개념으로 인정된다.
- ③ '꽃'이나 '고양이'와 같은 개념은 논리적 관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cm'나 'kg'과 같은 측정 단위는 자연 현상에 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 유형(추론) 적중, 독해 내용(하위어의 의미 요소-정보량) 적중

<2021 쾌도난마 모의고사>3월 2회 15번 외 다수

문 15.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파술'이란 상대방의 주장에 질문을 거듭함으로써 개념 규정을 음미하고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상을 낳게 하는 문답법이다.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지혜를 낳도록 돕는 자신의 역할을 산파에 비유하여 자신의 문답법을 '산파술'이라고 불렀다.

- ① 소크라테스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주의 깊게 경청했을 것이다.
- ②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개념을 규정해 보도록 이끌었을 것이다.
- ③ 소크라테스는 자기주장을 펴기보다 상대방이 깨달음을 얻도록 도왔을 것이다.
- ④ 소크라테스는 상대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모든 의견을 수용하려 했을 것이다.

<2021 쾌도난마 모의고사>3월 7회 5번

문 5. <보기>의 단어들의 의미관계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직업 → 작가 → 소설가  
 ㉠            ㉡